



충북혁신도시 최강 “탁구 덕후”들과 함께하는 금빛 스매싱 - KGS 탁구동호회 -



10년 전인 KGS 시흥 청사 시절부터 탁구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 사내 체육관에서 가볍게 탁구를 배우고 즐겨보자는 취지로 창설하게 된 KGS 탁구동호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본 동호회는 매 모임마다 전화원이 풀 리그전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고수 회원이 초보 회원을 도와주며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등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재직자들과 함께 하며 활발한 교류와 친목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13일,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지역의 타 공공기관 직원들과 화끈한 친선경기를 펼친 KGS 탁구동호회를 소개합니다.

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KGS 동호회의 레전드! 충북혁신도시 이주기관 직원들도 함께하는 “KGS 탁구동호회”





KGS 실내 체육관에 들어서자 푹! 푹! 푹! 탁구공 튕기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옵니다. KGS 탁구동호회는 김경주(행정지원처 회계부 부장) 회장을 중심으로 박규태(안전연구실 시스템연구부 차장) 총무 외 20여 명의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말이라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점심시간 또는 퇴근 후 모여 탁구를 칠 정도로 남다른 우애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기관 출신 회원까지 전부 모이면 50여 명 정도의 많은 회원 수를 자랑하며, KGS인들끼리는 1년에 2회 반기(상반기, 하반기) 결산 탁구대회를 실시하고, 분기별로는 타 공공기관 직원들과 함께 사내 체육관을 돌아가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활발한 모임 활동만큼이나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전반적인 실력도 나날이 향상된다고 하는데요. 동호회에 가입하여 탁구를 처음 접해본 회원들에게 선배들이 부상방지방법 부터 기술적인 부분까지 상세하게 One Point 레슨을 해주기 때문에 금방 실력이 는다고 합니다.



Interview

“

우리 동호회는 시흥 청사 시절부터 10년 정도 이어왔으며, 사내에 체육관이 있어서 탁구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회원이 늘어났습니다. 2년에 한 번 씩 사장배 탁구대회가 열리기도 하며, 저희 KGS 직원들끼리는 물론이고 타 공공기관 직원들과도 분기별로 체육관을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테랑 회원은 초보 회원에게 핸디캡을 주면서 풀 리그전으로 게임을 하는데, 여러 기관의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인맥도 넓어지는 등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즐거움과 우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젊은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고요. 앞으로도 많은 직원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멋진 동호회로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

KGS 행정지원처 회계부 김경주 부장 (탁구동호회 회장)

좁은 장소에서 적은 인원이 틈새 시간을 활용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꽃’





탁구의 가장 큰 장점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짧은 시간에도 가볍게 즐길 수 있고 실내 스포츠로서 계절이나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또한 몸에 크게 무리가 오지 않으면서도 운동효과가 뛰어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이기에 직원들에게 인기만점이라고 하네요. 그간 많은 공공기관의 체육관에서 돌아가며 모임을 가졌지만, 유독 KGS 체육관에서 모임이 잦았던 것은 KGS 체육관이 인근 시설 중 가장 넓고 많은 탁구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KGS 사내 체육관의 시설은 다른 기관의 회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점이기도 하고, KGS 탁구동호회의 자부심이기도 하답니다. 또한, 탁구에도 급수가 있는데요. 숫자가 낮아질수록 실력은 뛰어난 것으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9부에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 공을 받아치고 랠리가 가능하게 되면 8부, 본격적으로 룰에 따라 서브를 넣고 게임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7부, 게임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으면 6부, 자신만의 서브 노하우가 쌓이면 5부, 게임 시 드라이브 등의 공격 성공률이 절반 정도 되면 4부! 이런 식으로 급수를 매긴답니다. 따라서 실전 경기 역시 비슷한 급수끼리 복식 혹은 단식으로 매칭하여 펼쳐지게 되죠.

예측불허의 진검승부를 펼친 KGS팀 vs NIPA팀! 영예의 MVP는 누구?





이날에는 4, 5부의 실력을 갖고 있는 KGS팀과 NIPA팀의 복식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경기 룰은 11점을 먼저 내는 팀이 승리하며, 10:10 동점이 되었을 때는 상대 팀보다 먼저 2점을 내는 팀이 우승하게 됩니다. 아무리 친선경기라지만 각 기관의 이름을 건 자존심 대결이기도 하기에, 각 팀의 선수들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접전을 펼쳤는데요. 좋은 플레이에는 '나이스!', 상대 팀보다 점수가 쳐질 때에는 '파이팅!' 등 우렁찬 구호를 외치며, 열정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게임은 처음에는 KGS팀이 득점하며 이기는가 싶더니, 이내 NIPA팀이 점수를 따라잡아 듀스! 하지만 KGS팀의 강력한 스매시로 14:12로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날의 MVP는 KGS팀의 안전연구실 시스템연구부 박규태 차장님! 재작년 참가한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동호회의 에이스 능력자랍니다.

혁신도시라는 낯선 곳에서 함께 땀 흘리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우정 다져



영하를 웃도는 날씨임에도 반팔 운동복에 땀이 흠뻑~ 젖을 만큼 열정적이었던 한판 승부가 끝났습니다. 경기 후 가지는 휴식시간에는 다과를 즐기며 오늘 있었던 게임의 전략과 활약상을 주고받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탁구동호회 회원들은 혁신도시라는 낯선 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동호회 활동을 통해 서로를 챙겨가면서 함께 시간도 공유하고 주말에는 다른 대회도 같이 나가며 돈독한 사

경기 후 가지는 휴식시간에는 다과를 즐기며 오늘 있었던 게임의 전략과 활약상을 주고받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탁구동호회 회원들은 혁신도시라는 낯선 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동호회 활동을 통해 서로를 챙겨가면서 함께 시간도 공유하고 주말에는 다른 대회도 같이 나가며 돈독한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탁구는 공이 여러 방향으로 튀고 회전률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과 빠른 대응이 중요하게 되어 순발력과 반응시간, 판단력이 좋아지고 치매예방과 뇌 활성화에도 좋대네요. 또한, 언제 어디서나 탁구대와 라켓만 있으면 운동을 할 수 있으니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는 최고의 생활 스포츠로 제격이라는 KGS 탁구동호회 회원들. 마지막으로 다음의 모임을 기약하며 뜨거운 파이팅을 나누었습니다.



2015 제2회 KGS 사장배 동호인 체육대회 준우승

Interview



KGS 안전연구실
시스템연구부
박규태 차장 (탁구동호회 총무)

“ 탁구동호회가 처음 창설됐을 때부터 함께 했으니 벌써 10년쯤 됐네요. 시흥 본사에서 근무했던 시절, 시흥시 탁구클럽에서 레슨을 2년 반 정도 받으며 치다가 잠시 쉬고, 충북으로 오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탁구공을 치려면 공을 끝까지 자세히 보고 쳐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향상되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탁구 급수가 4부쯤 되는데, 재작년 전국대회 때 저희가 준우승을 해서 상당히 기쁘고 보람찼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대구 경북지역본부에 계신 박수찬 차장님(1부) 본사에 오시면 한수 가르쳐 주시고, 본사 재난관리처 김보영 차장님(2부) 은 시간되실 때 체육관에 자주 오셔서 즐겁게 한 게임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숨은 고수님들 내년엔 큰 대회에서 즐탁하기를 고대합니다.

”

“ 저희 부서 박규태 차장님께서 소개해주셔서 올 초에 KGS 탁구동호회에 가입해서 1년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전에도 탁구를 좋아해서 치



“ 저희 부서 박규태 차장님께서 소개해주셔서 올 초에 KGS 탁구동호회에 가입해서 1년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전에도 탁구를 좋아해서 치곤 했었는데, 동호회에는 실력자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잘들 알려주셔서 그분들께 배우면서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근처의 타 기관 분들과도 친목을 다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

KGS 시스템연구부 윤혜주 연구원



“ 한 달에 1번 정도 혁신도시 기관 회원들끼리 친선경기를 할 때마다 매번 참석하려 하고 있어요.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아내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탁구는 단시간 내 많이 움직이고 전신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탁월해서 살도 많이 뺐습니다. 우리 공사만도 10명 정도 참석하고, 다 모이면 50여 명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탁구 동호인들과 함께 즐겁게 게임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이길영 책임연구원

재미만점, 운동효과 만점의 팔방미인 함께하는 즐거움과 삶의 활력소는 덤!



시흥 청사 시절의 '탁구 덕후'들이 모여 충북지역의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조촐하게 치맥 한 잔 하면서 혁신도시 생활이나 직장의 애로사항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 어느새 끈끈한 이웃이 된 이들에게 탁구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즐거움과 삶의 청량제였습니다. 체중 감량과 건강한 몸까지 보장하는 매력적인 전신운동 탁구. KGS 탁구동호회는 언제나 탁구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겨울엔 KGS인 모두 화합과 소통의 촉매이자 건강의 활력소인 탁구를 통해 소통과 건강의 스매싱을 힘차게 날려봅시다!



Better

